

**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과 실내디자인 사적의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Hotel Interior Decorations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ior Design

오인욱* / Oh, In-Wook

Abstract

The vocabulary of modern grand hotels' interior designs reflects western design patterns, showing its nostalgia for modern architecture. And it also contains the trace of past designs implanted by others then, expressing the hardships of Korean history.

Like this, the past architectural style distorted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has continued to exist until now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because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figure out the history of modern interior designs.

And also there has been the lack of data and aesthetic descriptions about the modern interior designs that contain the historical nature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will review the interior design of modern buildings, which trace back to the dawning of the Korean Interior Design. And it aims to understand the hotel interior's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meanings by paying a particular attention to its lost parts. And it also aims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a clue of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interiors by systematically putting in order the ever-disappearing materials of modern hotel interiors.

키워드 : 근대 실내건축, 대불호텔, 손탁호텔, 조선호텔, 반도호텔, 실내디자인 표현성, 실내디자인사

Keywords :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Daebul Hotel, Sontag Hotel, Chosun Hotel, Bando Hotel, Interior design expression, History of interior design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늘의 현 모습을 존재하게 하는 역사의 마디마디에서 건축된 근대 건축물중의 호텔건물들은 많은 생활패턴의 영향과 사회, 경제적인 영향으로 쉽게 지워지고 있다. 대다수의 근대 호텔건축에 대해서는 근대건축에 대한 사료들로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실내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채 소실되었다. 간간히 건축적 측면에서 부분적 접근이 있어왔지만 건축의 기능적 특성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 실내디자인의 특성과 디자인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기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워진 근대 호텔 건축의 실내 디자인의 흔적을 찾아 당시의 실내 공간 구성과 근대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며 실내디자인 사적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디자인 사적의미를 발견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내공간들의 표현 특성과 함께 시대적 흐름을 찾아보면 한국 실내 디자인의 여명기를 되돌아보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점점 소멸되어가는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호텔 실내디자인의 각론적인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근대 실내디자인사의 단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88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건축이 탄생된 인천 대불호텔을 시점으로 하여, 1902년에 착공하여 1903년에 정동 외국인촌에 세워진 서울의 최초 양식호텔인 손탁호텔과 1913년에 착공하여 1914년에 준공한 최초로 호텔이 회의 장소로 이용된 조선호텔, 1938년에 준공한 최초의 상용호텔인 반도호텔까지 가급적 최초를 시도한 유형의 근대호텔을 범위로 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1차적으로 관련 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해서 조사하고 2차적으로 국제관광공사에서 발간된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처리지를 활용하여 철거 호텔의 실내 규모와 내용을 밝히고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호텔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근대 호텔건축의 시초부터 발전순서에 따라 시대별로 구분하여 대표적 근대 호텔건축물의 실내 사례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근대 호텔의 생성과 역사적 배경

2.1. 구한말의 숙박시설과 근대호텔 생성

1876년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되고 나서 신미양요 이후인 1882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등 한반도가 열강들의 이권 쟁취 각축장이 될 무렵 금융업, 운수업, 무역업, 미곡, 잡화상, 여관업, 조리업 등이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숙박업은 외국인들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고, 그 수요자들도 대부분 외국인들이었다.

1887년에 요정과 숙박을 전문으로 하는 시천 여관이 일본인에 의해 생겨난 것을 시작으로 남산주변과 충무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숙박시설이 생기고 1908년에는 전국여관이 123개에 이르고, 1927년경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¹⁾ 되었으나 운영형태는 대부분이 한식과 일식으로서 호텔의 발전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전환점을 가져온 커다란 이유는 외국인에 의해 세워진 서구식 숙박시설인 호텔의 등장이다. 숙박시설개념이 바뀌게 되어 온돌에 침구를 구비한 한식여관과 다다미가 설치된 일식여관이 보통이었으나 침대와 가구가 설치된 호텔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평북 운산에 금광이 개발되어 서구인들의 서울 왕래가 잦아 서울에 가려면 인천을 통해야 했으므로 우리나라에 처음 호텔이 생긴 곳은 의외로 인천이다.

대불호텔이 인천에 개관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생성되었다.

2.2.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 대불(大佛)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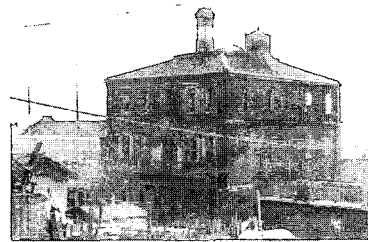
「仁川 府史」(1933刊)와 「開港과 洋館 歷程」(1959刊)에 의하면 1885년 당시의 인천 일본 조계지안에 일본인에 의하여 호텔을 목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호텔건물이었다. 그리고 「...벽돌 3층의 이 양관(洋館)은 일본인 호리 리기타조오(堀力太郎)가 1887년 건축에 착수하여 1888년에 낙성시킨 것인데 얼핏 보면 청관(淸館) 같으면서도 기실(其實) 일본지계(日本地界) 첫머리라는데 또한 흥미가 있다. 일본지계 제일 첫집이 호리씨 자택이고 그 당시 가장 하이칼라로 지었노라는 이 벽돌집이 둘째 집인데 외국인 특히 한국을 찾아드는 구라파인 혹은 미국인 상대의 양식호텔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²⁾ 라고 표현되어 있다.

인천, 부산, 원산이 개항되자 인천의 중앙동에 대불호텔이 3층 11실의 벽돌 건물로³⁾ 개관되어 유럽인, 미국인 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교관들이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이 서울보다 먼저 서양인을 상대로 한 호텔이 먼저 생긴 것은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원산이나 인천으로



<사진 1> 대불호텔 전경



<사진 2> 대불호텔

오게 되었고, 인천에 와서는 서울에 까지 오기에는 꼭 인천에서 하루를 머물른 다음날 일찍 서울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부터 대불호텔은 사당길을 걸다가 후에 청국인에게 매각되어 '중화루(中華樓)'라는 중화 요리집으로 영업하다 1979년에 철거되었다.

2.3. 서울의 최초 양식호텔 손탁호텔(Sontag Hotel)



<사진 3> 손탁호텔 외관

인천의 대불호텔 다음으로 서울에 최초로 세워진 양식호텔은 1902년에 독일여인 손탁(Sontag)이 정동에 세운 손탁호텔이다. 이 호텔을 세운 손탁은 당시 주한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Waber)의 처형으로 1885년 10월 웨베르가 공사로 부임할 때 같이 서울에 왔다. 손탁은 원래 「알사르로렌」 출신으로 한국에 온지 얼마 후에 웨베르의 추천으로 궁정의 외인 접대의 일을 맡게 되었고, 고종 및 양반의 서양식기, 서양식 실내장식품류의 구입에 관여하게 되었다. 손탁은 1895년에 고종으로부터 경운

1)오정환, 호텔경영의 변천과정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원 박논, 1991, p.98

2)최성연, 개항과 양관 역정, 경기문화사, 1959

3)仁川府廳, 仁川府史, 1933, p.1470



<사진 4> 손탁호텔 입구 계단
주한외교관과 환담하는 손탁여사⁵⁾

궁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서쪽의 땅과 집을 하사 받았다.⁴⁾ 당시 그의 저택은 외국인들의 짐치소 역할을 하였으며 청일전쟁 후에는 미국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로 사용되어 외교의 중심가가 되었다. 그 후 1902년 10월에 옛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양관을 지어 호텔로 경영하게 된다. 손탁은 2층 양옥인 이 호텔 아래층에 식당 겸 커피숍을 열었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커피숍이다.⁶⁾ 이 손탁호텔은 우리나라의 서구식 호텔의 건축과 실내디자인 등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고 처음으로 서양식 식당과 커피숍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서 구입하여 대학교의 교실, 기숙사로 이용하다가 1922년에 이 건물을 헐고 각종 부속시설이 포함된 프라이 홀(Frey Hall)을 세웠다.⁷⁾

2.4. 최초로 호텔이 회의장소로 이용된 조선호텔



<사진 5> 조선호텔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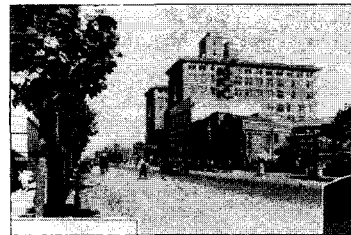
1910년 합일합방 후 세 계만방에 선전을 목적으로 「施政五年 記念物産 共進會」를 경복궁에서 열기로 하여 내외국인을 숙박시킬 호텔이 필요하여 조선총독부철도국이 주관하여 1913년 9월 30일 조선호텔을 기공하였다. 이와 같은 명목을 세워 고종황제의 즉위식(卽位式)을 올렸던 원구단(園丘壇)과 석축(石築) 등을 헐고 그 대지 16,750평에 건물(연2123평)을 독일인 「게로르그 데 라란데(George de Lalande)」의 설계로 일인기사(日人技師)가 시공을 맡아 1914년 9월 30일에 준공하였다.⁸⁾ 이것이 당시의 조선경성철도(朝鮮京城鐵道)호텔이다. 이 호텔은 1967년의 국제관광공사의 '조선호텔 처리지(處理誌)'에 보면 일본의 고관과 왕족의 독점물로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물론 정부총감들이 내 외빈을 영접하는 연회장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1915년 4월 24일 전 조선기자 대회가 열렸는

데 이 일은 호텔에서 큰 규모의 정식회합을 갖게 된 시초였다.⁹⁾ 따라서 호텔이 회의장소로 이용되기는 조선호텔이 최초로 기록 되어 진다.

미군정시에는 미군 고급장교 숙소로 사용되었다. 6.25동란이 후에는 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교통부가 인수하여 직영하였다. 1950년 9월 28일 수복과 함께 다시 미 제5공군숙소로 사용되어오다 1951년 8월 국방부에 의해서 증발되었다가 1952년 8월 제8군 장교숙소로 사용하는 등 수많은 곡절 끝에 1961년 조선호텔로 신장개업을 했었다.¹⁰⁾ 이때 국제관광호텔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내부구조를 종전의 양식스타일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전통적 디자인을 가미하는 스타일변경을 하였다. 1963년 8월 교통부로부터 국제관광공사가 반도호텔과 동시에 조선호텔을 인수, 운영하게 되자 이를 통합하여 「반도조선호텔」로 개칭하고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연결하기 위해 연쇄상가(連鎖商街) 아케이드를 구축하여 호텔의 운영 효율화는 물론 근대호텔로서의 면모를 쇄신하였다.

1967년 7월 53년 만에 현 건물은 헐리게 되고 아메리카 에어라인(America Air Line)과의 합자투자로 조선호텔자리에 총 32층의 최신 대규모 호텔이 건설되었다.

2.5. 최초의 상용 호텔인 반도호텔



<사진 6> 반도호텔 외관

철도개통과 더불어 1929년에 일본항공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해지자 1936년에 일본인 노구찌(野口)에 의해서 세워진 조선빌딩인 8층 콘크리트 건물로서 객실 111개를 보유(150명 수용)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상용호텔(Commercial Hotel)인 반도호텔이 개관되었다. 이 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여행이 제한되어 일본인,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되었고, 호텔사업도 일본인들에 독점되고 있었다.

이 호텔은 순수한 서구식 호텔로서 미국의 Bufalou Statler호텔 경영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 시설규모로는 최대의 것이었다.¹¹⁾

1945년 해방이후 미24군단 사령부로 사용되었으며, 미군은 군정청(軍政廳)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하지(Hodge) 중장의 숙소와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다.

1948년에는 미대사관과 미경제협조처사무실 겸 직원숙소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1949년에는 미국에 기증하여 엠바서호텔로 불리졌다가 1950년 미8군 서울지구사령부로 이용되다 1953년에 정부의 총무처가 인수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

4)조선일보, 1982.4.2일자.

5)김은신, 한국최초 101 장면, 가람기획, 1998

6)이흥, 커피 기원과 전제의 역사, 월간조선편집위원
<http://monthly.chosun.com>

7)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90년사, 1979, p.120

8)국제관광공사, 조선호텔처리지, 1967, p.14

9)Op.cit., p.24

10)Ibid., p.28

11)세방여행40년사, 계명사, 2001,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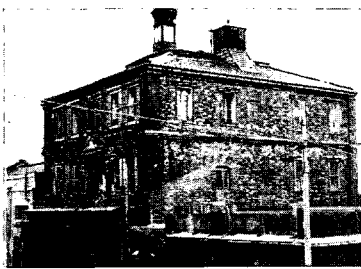
립되고 많은 미군들과 군속 그리고 전후 UN한국 부흥단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점차 관광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1953년 8월에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도호텔을 인수한 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풍을 모두 없애고 서구식 호텔로 개보수 하도록 지시¹²⁾하여 관광호텔로 개조하여 호텔산업의 발전이 계속되었다. 이는 당시에 가장 돋보이던 대형 건물로 폭격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된 자재를 미국에서 직송한 최신의 것으로, 그리고 세련된 미국 디자인이 많이 선보인다. 이 디자인들은 미국인 노먼 디한(Norman R. DeHaan) 이라는 실내장식가에게 의뢰함으로써 한국 실내디자인계에서는 실내디자인이 건축과 별개의 독립된 용역으로 다루어지던 최초의 프로젝트로 인식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반도호텔은 조선호텔과 함께 1974년 8월에 철거되고 롯데호텔이 그 위치에 신축된 것이다.

3. 근대호텔에 나타난 실내공간 사례

근대적 여숙의 발달과 함께 서양인들을 위한 호텔이 생기게 되었는데 1910년 이전에 이미 한국 최초의 인천 대불호텔과 스투어트 호텔(Steward Hotel)이, 서울에는 1902년에 손탁 호텔이, 1914년 조선호텔(서울철도호텔) 등은 동양일류의 호텔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최초의 상용호텔로 서울의 반도호텔이 준공하게 된다. 이상의 근대호텔들의 사례들을 관련 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을 통해 조사해서 실내공간의 구성과 실내디자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1. 대불호텔(大佛호텔)



<사진 7> 대불호텔

인천 중앙동 1가 18번지에 위치했던 대불호텔은 서구인을 위한 숙박업소로 건립한 한국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다. 1887년에 착공하여 1888년¹³⁾에 준공한 벽돌 3층 건물로서 면적은 223평¹⁴⁾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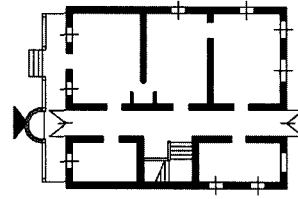
최초의 호텔이다. 명치초기(明治初期) 일본 개항지인 요코하마(橫濱)의 주택건축에 많이 사용되던 미국 개척시의 분위기를 갖은 1층 부분의 난간과 그리스식 破風三角形등 절충주의 건물로서 기둥이나 바닥판은 목조이며 지붕은 일식(日式)기와 이음¹⁵⁾을 한 건물로서 자재는 일본에서 수입¹⁶⁾ 하여 세워진 서구

12)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50년비사, 한국여행신문사, 1999,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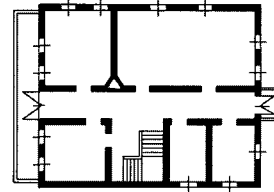
13)仁川府史(p.1470)에는 준공년도가 1889년임.

14)仁川區廳 재산대장기록 평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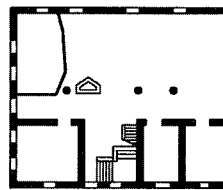
15)이영철, 인천 개항 초기(1883-1910) 양식건축의 변천과정 및 특성에 관



1층



2층



3층

<그림 1> 대불호텔 평면도

추구하는 경향과 기능성을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실내디자인

당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이사 최성연, 홍익대박물관장



<사진 8> 대불호텔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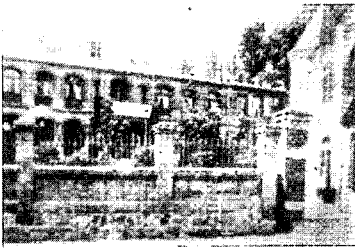
<사진 9> 대불호텔 계단실

이경성의 실내분위기를 전해주는 대담(공간 7304)중에 「침대가 Double Bed로서 아칸사스잎 문양을 넣어 주물한 것인데 상당히 호화롭고 쿠션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았다는 추억...」 보면 객실도 상당한 수준의 고급 호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대담 내용중에 「대불보라든가 계단, 2층 난간 같은게 굉장히 가파른 것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계단실의 면적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천정은 후로링을 쪽쪽갈았는데 3층 홀의 천정에는 무늬를 넣었어요」 이는 그시대의 근대적인 감각의 기능인 디자인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실내의 재료는 목재를 주장식재를 사용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하여, 인하대 석논, 1978, p.45

16)仁川府廳, 仁川府史, 1933, p.1133

3.2. 손탁호텔(Sontag Hotel)



<사진 10> 손탁호텔

손탁호텔은 정동 29번지에 세운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서양 외교관 대한제국 고위관리들의 사고장 역할을 하였고,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종종 이용된 곳이다. 이 호텔은 Sabatine에 의해 설계되었다.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이 한때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로 사용되어 외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1) 공간구성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벽면 전체가 아케이드로 구성되며 르네상스 스타일로 1층은 보통 객실과 식당, 커피숍으로 사용되고, 2층은 국민급 귀빈객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1층의 커피숍이 서울에서 호텔식 다방의 시초가 되기도 했다. 손탁호텔의 평면은 문헌에 자료가 없으며, 연극 차범석 작 이해랑 연출 「손탁호텔」 작품의 시나리오에 손탁호텔의 내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층은 3분의 2정도의 넓이가 짜룻으로 쓰이고 3분의 1은 접수와 회계를 겸한 사무실이다. 2층으로 올라 갈수 있는 층계가 곡선으로 설치되고, 2층은 숙박할 수 있는 객실문이 나란히 있다. 손탁의 거실도 2층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 층계 아래벽에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고 무대 우측벽에 뒤뜰과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공간의 간결성과 단순성을 표현하고 있다.

(2) 실내디자인



<사진 11> 손탁호텔 커피숍¹⁷⁾

손탁 호텔 내부도 시나리오에 의하면 「짜룻에는 대여섯개의 원탁을 중심으로 의자가 4개씩 놓여 있다. 짜룻은 무도회나 집회장으로 쓰인다. 방 전체는 초록 빛 비로도가 기조로 되어 있어 르네상스식의 건축 실내를 나타내고

있다. 벽에는 몇 개의 가스등이 걸려 있고 천정에서부터 호화로운 산테리아가 내려져 있다. 현관문 옆에 영문으로 'Sontag Hotel' 간판이 걸렸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표현된 내용을 <사진 11>과 비교해 보면 르네상스식의 아케이드 형식의 창에 벽면은 초록 비로도천으로 마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7) 문화재청, 창덕궁 회정당 신관 실측수리보고서, 2003. 12, p.69

3.3. 조선호텔(Chosen Hotel)/ 철도호텔(Station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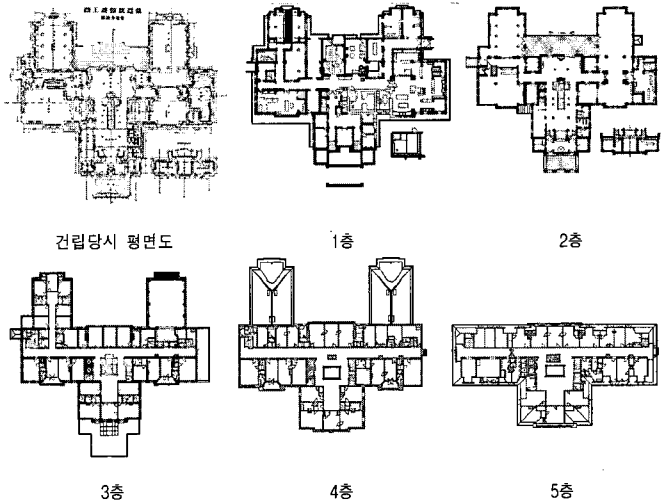
<사진 12> 조선호텔 외관

철도국 직영으로 운영된 철도호텔(조선호텔)이 1914년에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세워졌다. 설계는 게르르그 데 라란테(Gdor de Lalande/ 1872-1914: 독일인 건축가)가 당시 북유럽

에서 유행하던 독일식 유겐트 스타일계 서양관으로 설계한 것을 우리나라 풍습과 풍토를 고려하여 약간 개조, 가미하였으며, 시공은 시미즈구미(清水組)란 건설회사와 일본인 기술자(主任技師 堀内智三郎)에 의해 1년여에 걸쳐 건립되었다.¹⁸⁾

1961년 8월에 정식으로 교통부가 인수한 후 국제관광호텔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본격적인 복구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내부구조를 종전의 양식에서 탈피하여 보수하게 되어 1961년 12월에 준공과 동시에 신장개업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을 보게 되며, 1963년 8월 국제관광공사에서 반도호텔과 더불어 인수하여 「반도조선호텔」로 합병, 운영하였다.

(1) 공간구성



<그림 2> 조선호텔 평면도

출처: 한국건축문화연표, 한국건축가협회, 2004

부지 총면적 6,645평에 본관건평 2,123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며 내부구조는 이발실, 미용실, 주방, 식당, 주장(酒場), 동력실(動力室), 식료창고, 욕실, 회의실, 휴게실, 대소연회실, 배선실, 오락실, 귀빈실, 특실, 기타 침실 및 화장실 등 총 172실로서 지하실은 주로 동력실과 주방 및 관리사무실, 1층은 휴게실, 주장, 식당, 연회장 등이고 2층은 귀빈실을 비롯하여 회의실, 침실, 부속 욕실로 되어 있으며 3, 4층은 보통 침실에 다 일본식 방이 5실이나 있었다.¹⁹⁾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귀빈실 5실, 특별침실 10실, 상등 침실 29실, 보통 침실 17실, 급사실 3

18) 국제관광공사, 조선호텔처리지, 1967,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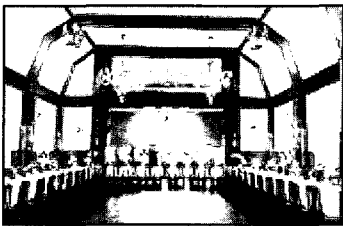
19) Ibid., p.16

실로 총 64실로 구성되었다. 영업장의 수용인원은 특별식당 36인, 연회실 240인, 보통식당 60인 등으로 연회실과 보통식당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²⁰⁾ 그 인원은 350인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카테일식으로 할 경우 500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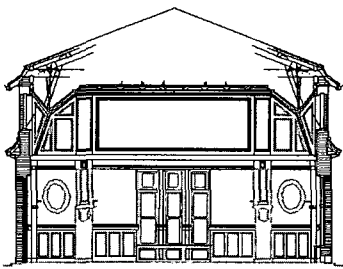
(2) 실내디자인



<사진 13> 조선포텔 콘서트 홀



a) 연회장 볼룸 실내



b) 연회장 볼룸 단면도

<사진 14> 준공당시 연회장 볼룸



<사진 15> 프런트 데스크



<사진 16> 커피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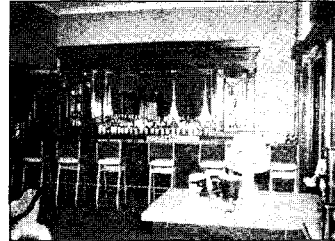
실내장식은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와베(1874-1918: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출신, 장식미술가)²¹⁾가 담당했다. 건물양식은 서구식으로서 우리나라 풍습, 풍토를 참작하고, 팔각당이 후원에 위치했으니 외관의 미와 내부설비가 화려하고 우아하였으며, 실내장식품은 근대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다.

시설자재는 주로 외국산으로서 실내장식 및 침구는 영, 독, 불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건재는 석재 및 내벽용벽화(內壁用壁瓦: 靑煙瓦)로 한국산이고, 타일은 미, 독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다른 기타자재는 일본산으로 사용되었다.

반도호텔이 상업성 호텔이라면 조선포텔은 귀빈호텔로서 각종 회견장, 연회장이 있어 이때 푸린세스름은 국내인들의 이름있는 결혼식장으로 그 인기가 높았다. 부대시설 영업장으로는 아리랑하우스, 비어가든코트 및 옥외 연회장 등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했었다.²²⁾ 연회장 볼룸과 콘서트홀은 1914년 개관 당시 루이 16세식의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으나 이후 보수공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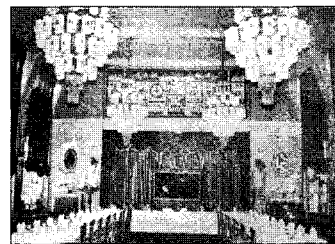
<사진 17> 철거당시 커피테라스



<사진 18> 바(Bar) 청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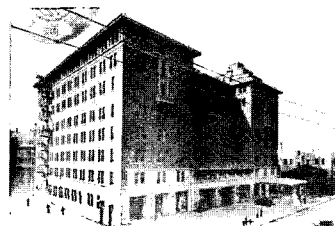
<사진 19> 객실 내부



<사진 20> 철거 당시 연회장 볼룸

인해 양식의 디자인에 한국 전통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실내를 연출하기 위해 상들리에 및 천정의 조명을 <사진 20>과 같이 많은 변형을 가져왔다. 커피 테라스 또한 연회장 볼룸과 콘서트홀 사이의 외부 데크를 연결하였으며 온실형으로 철재로 공간을 조성하여 내외부의 중간영역을 만들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나 보수공사 이후는 <사진 17>과 같이 1960년에 유행하던 일반다방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주점은 지금의 바라운지로서 격식을 갖춘 정중함과 바카운터와 벽면디자인은 목재원목을 사용하여 디테일의 정교함과 양식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객실의 실내 또한 현대호텔의 분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다이닝룸, 퀴빈접대실, 콘서트홀과 같은 다양한 공간구성과 최고급 서양 물품들을 갖추고 나라를 대표하여 국민을 모시는 유일한 장소였다.

3.4. 반도호텔(Bando Hotel)



<사진 21> 반도호텔

1938년 3월에 준공된 반도호텔은 고교정태랑(高橋貞太郎)이 조선(朝鮮)빌딩으로 설계한 지상 8층, 지하²³⁾ 1층, 객실 111개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상용호텔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정부가 서울을 환도하면서 반도호텔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6.25동란으로 파괴된 반도호텔의 재건을 미국인 노먼디한(Norman. R. DeHaan)²⁴⁾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호텔의 디자인을 위촉했었다. 디한이 디자인한 정문, 입구의 개보

20) 국제관광공사, 조선포텔처리지, 1967, p.16

21)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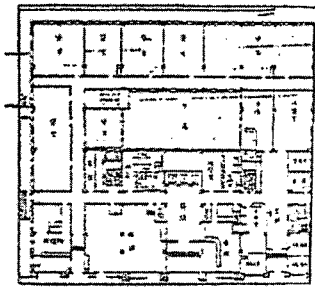
22) op.cit., p.33

23) 세방여행40년사, 계명사, 2001, p.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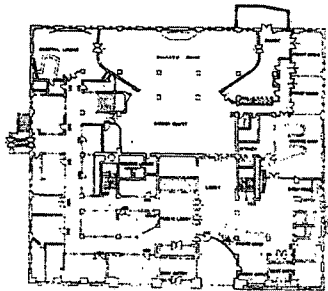
24) 시카고사람으로서 미군으로 수복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에 머물렀고,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도 친근하여 경무대에 출입하였다.

수, 커피숍, 볼룸 등의 실내디자인은 서구적 실내디자인이라는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사의 첫 장으로 기록되어졌다. 서구 실내디자인 개념과 작업으로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요시 된다. 그리고 건축적이고 구조적 측면을 담당했던 건축가 강명구는 커피숍과 객실에 한국적 요소디자인²⁵⁾을 가미하였고, 노먼 디한에게 동양에 있어서의 한국적인 것이 갖은 독창성을 전하려고 했으며, 실내디자인은 물론 소품, 집기까지 통합적 디자인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1) 공간구성



a) 1938년도 평면도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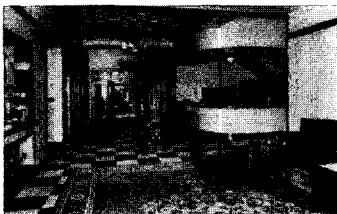


b) 1954년 개보수이후 평면도

<그림 3> 반도호텔 1층 평면도

일본식(다다미방)인 객실이었으며, 8층에는 대회의실, 회합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회실은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건물 가운데 부분은 소규모 중정(中庭)을 마련하여 각 실들의 환기와 채광을 좋게 하였다.

(2) 실내디자인



<사진 22> 프런트 오피스 & 메인 로비

반도호텔 개보수 공사는 외국에서 최신식 기자재를 도입 국제수준급 호텔로 시설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호텔시설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²⁷⁾ 재료는 주로 미군서 수입했고 시공재료는 호마이카, 흠라버, 진공판유리(페어글라스), 음료수용 파이프(내부 동도금), 수도전, 방음 방열재 등이며, 자동전화교환기, 최신식 세탁기 등도 설치하

반도호텔은 초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물로 호텔 1층에서 5층까지는 노구찌가 경영하는 회사 일본공영(日本工營)과 임대 사무실로 1층은 상점과 2층에서 5층은 임대 사무실, 6-8층은 호텔로 사용되었다. 1층 출입구부터 중앙에는 임대 사무실 전용 입구, 우측에는 호텔전용 입구로 나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및 부대 코어 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이한 것은 지하실 전체가 호텔 부속시설 이었다는 점이다. 즉 호텔 지배인실, 사무실, 트렁크 보관실, 주방 등이었다. 6층은 양식 침실, 7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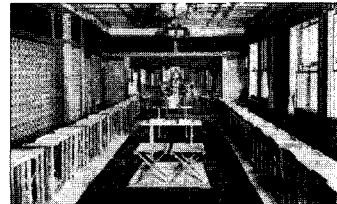
25)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50년비사, 한국여행신문사, 1999, p.80
 26)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 1992, p.89
 27)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울근현대역사기행, 1996, p.79

였다. 또한 「마스트 키」시스템이 전관과 층별로 갖추었고, 에어컨은 객실에는 윈도우식, 커피숍, 식당, 연회장 등에는 중앙조절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였다. 메인로비의 프린트와 대기실에는 리놀륨(Linoleum)위에 부분 카펫을 깔고 벽은 벽지를 붙이거나 회반죽에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천정은 석고반자로 다각형의 몰딩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대적인 양식으로 된 천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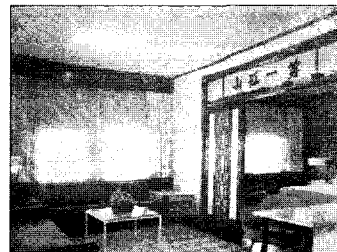


<사진 23> 바(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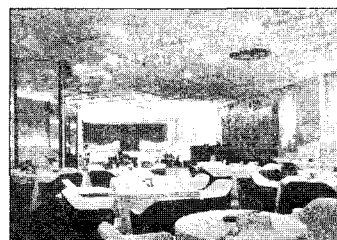
-바(Bar)의 실내는 현대적 가구와 바닥을 목재로 마감하고, 벽은 벽지를 붙이고 부분적으로 허리벽과 카운터 부분은 목재판을 붙여 마감하고 천정은 회반죽을 바르고 수성페인트로 마무리하였다. 조명등은 현대적 디자인으로 원탁과 깔 어우러진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Drapery curtain)으로 코니스(cornice)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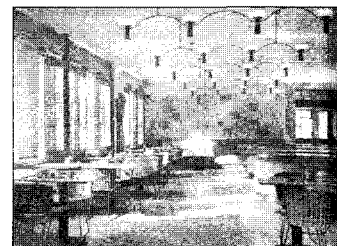
<사진 24> 신전 결혼식장



<사진 25> 객실²⁸⁾



<사진 26> 연회장



<사진 27> 티룸

28)김영상, 서울시사편찬위원회, this is seoul, 1957



<사진 28> 58년 반도호텔 볼룸에서 미스코리아 행사장면



<사진 29> 1954년 반도호텔 벽화(한국의 봄)제작 모습의 작가 김홍수

이들과 의자 등의 세팅은 일류 호텔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다. -티룸의 실내분위기는 연속된 조명기구의 디자인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벽면의 대형벽화 처리는 1950년대의 실내장식의 원조를 느끼게 한다. 특히 창문의 전통문양의 사용과 현대적 가구와의 조화는 시대적 세월을 느끼게 한다. 1954년 반도호텔의 개보수 작업이 완성²⁹⁾ 될 즈음에 서울신문 필화 사건³⁰⁾의 「나의 이력서 김홍수」 기사를 보면 반도호텔 벽에 '한국의 봄'을 그려 응모작으로 선택된 내용이 있다. 봄에 산나물을 켜는 한가로운 장면을 담은 그림을 그려 벽화를 사용한 내용으로 보아 1950년대에 무대장치, 영화세트, 초상화, 간판, 회화 등과 같은 그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던 화가들이 실내장식도 개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근대 호텔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과 실내디자인 사적 의미

4.1. 근대 호텔 실내공간에 나타난 표현 특성

개항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근대호텔의 실내공간에 주목하여 근대호텔의 실내공간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근대 호텔의 실내공간 표현 특성

구분	실내공간 표현 특성	
 대불호텔 1887년-1979년	공간 형태 표현 평면형식이 중복도형으로 저층에 객실을 두고 상층에 테라스가 있는 홀을 두어 사교장을 만들고 있다. 이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면도
	요소 디자인 세부장식을 청동으로 사용 아칸사스잎 문양의 주물 침대 사용 천정재료는 목재 후로링	 대불호텔 계단실 출처: 공간지, 7304

29) 세방여행사 40년사, 계명사, 2001. 7

30) 한국일보, 불 유학 앞두고 호텔벽화 심혈 외중 리영사판터 피난민 그림으로 곤욕, '사상의심' 당국조사 여권압수당함. 이것이 서울신문필화사건

구분	실내공간 표현 특성	
 손탁호텔 1902년-1922년	공간 형태 표현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르네상스식의 실내를 표현. 상층에 귀빈실로 구성하고 하층에는 커피숍 등 공공부분으로 구성. 공간의 간결성과 단순성을 표현하고 있다.	 커피숍 자료출처: 창덕궁 회정당 신관 실측수리보고서
	요소 디자인 바닥은 타일 벽면은 초록색 비로도 도베 벽에 가스등 설치 천정에는 상들리에를 부착	
 조선호텔 1914년-1967년	공간 형태 표현 북유럽양식의 화려한 건물로서 루이 16세식의 분위기를 연출한 응접실, 다이닝룸, 귀빈접객실, 콘서트홀, 볼룸을 갖춘 현대식 공간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간감과 개방감을 표현하고 있다.	 커피숍 자료출처: 조선호텔 처리지
	요소 디자인 시설자재는 외국산으로 실내 장식 및 침구는 영, 독, 불의 제품을 사용	
 반도호텔 1938년-1974년	공간 형태 표현 1953년에 개보수 공사에서 커피 테라스, 볼룸 등은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공간구성이 이루어짐. 1층은 상점, 2층-5층까지 사무실 용도로 쓰이고 6층은 양식 객실, 7층 일본식 다다미방의 객실, 8층은 대회의실, 회합실로 구성. 이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Bar) 연회장 객실 자료출처: 서울근대 공간 디지털 콘텐츠 근대업서첩
	요소 디자인 재료는 미국에서 수입. 호마이카, 홀라버, 진공판유리 등을 사용. 바닥은 목재 불럭, 가구는 현대식 가구, 커튼은 드레퍼리 커튼으로 코너스를 강조	

4.2. 근대호텔의 실내디자인 사적 의미

실내디자인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문화 발달 속에 깊이 근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표현의 동기, 대상, 소재로 인하여 하나의 역사적 속성을 갖추게 된다³¹⁾. 그리고 역사적 실체로서 고려할 때 실내디자인 행위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표현의 동기는 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876년 개항기 부터 한국 근대건축의 실내는 근대건축과 함께 양풍스타일이 신부, 선교사, 외교관들에 의해 이입되어 새로운 양식과 방법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1887년에 세워진 대불호텔과 1902년 세워진 손탁호텔은 서양인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이므로 자연 양풍스타일의 공간이 필

31) 박홍, INTERIORS, 1999.12, p.110

요해지고 실내장식품 역시 서양인의 기호에 맞추어 선택하게 된다. 특히 서울에 최초로 생긴 손탁호텔에 사용되어진 집기류 등은 손탁에 의해 서양식기, 서양 실내장식품으로 양풍스타일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양풍의 실내디자인이 도입된 근원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건축과 실내의 관계에서 특정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절충주의적 양식이 대부분이었다. 1914년에 세워진 조선호텔은 양식스타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1961년에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신장개업을 하게 된다. 이처럼 60년대의 디자인 양상은 한국적 요소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엿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실내디자인(당시 실내장식계)계에서 활동하던 인물로서는 길공사의 길경일(1920년), 김관현(1923년), 김영찬(1909년), 손계풍, 이명구, 이명호(1924년) 이봉선 등 이다. 이들은 한국 실내디자인계의 제1세대 개척자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세대들의 연령으로 보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주로 활동한 세대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무대장치, 초상화, 회화, 간판의 상업미술 등과 같은 그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들로 분명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의 실내를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2세대인 김원석, 문신규, 손석진, 장충섭, 조성렬 등도 성장하면서 조선호텔과 반도호텔의 공간경험으로 강화유리로 된 투명한 현관 출입문을 접하게 되고, 형광등의 출현, 천장제의 아크릴조명, 호마이카 등에 의한 공간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³²⁾ 이러한 경험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실내디자인 사적으로 1세대, 2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준 근대호텔로 인식된다. 따라서 근대호텔의 실내공간은 사적의미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개항기 부터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호텔의 실내공간에 주목하여 건립 배경과 실내공간구성을 파악하여 한국 근대 실내디자인에 접목되어진 표현 특성과 함께 한국근대 실내디자인 사적의미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의 전환점을 가져온 큰 이유는 외국인에 의해 세워진 서구식 숙박시설인 호텔의 등장이다. 숙박시설 개념이 온돌에 침구를 구비한 한식여관과 다다미가 설치된 일본식 여관이 보통이었으나 침구와 가구가 설치되는 다양한 공공공간들이 구성되어 호텔의 개념이 접목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호텔의 기능 중에 연회장은 필수적 공간이지만 1915년에 호텔에서 큰 규모의 정식회합을 갖게 된 시초로 회의장으로 이용된 것은 조선호텔이 최초로 기록되어 진다. 또한 결혼식장도 1963년 이후 개설되고 부대 영업시설들이 옥외에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현대호텔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단지 숙박 개념의 호텔에서 회의 장소, 결혼식장, 커피숍 등의 부대시설이

한 장소에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한국 실내디자인 사적의 미로는 복합 공간 탄생으로 제1세대, 2세대들이 이러한 공간들을 경험 하게 되어 이후 1960년, 1970년대의 한국 실내디자인의 태동기에 공공 공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근대 실내디자인의 특성은, 서울에 최초로 양식호텔을 세운 손탁이 당시 주한 러시아공사 웨베르의 도움으로 궁정의 외인 접대일을 맡으면서 고종 및 양반의 서양식기, 서양식 실내장식품류를 구입하여 들여오는 역할로 서양식 실내장식과 가구들이 도입되어 양풍(洋風)스타일이 지배적이었고, 이후에 건립된 호텔들(조선호텔, 반도호텔)은 한일합방이후 주도적인 영향력은 일본에 있었으나 미, 영, 불, 독일, 러시아, 청국 등의 영향으로 많은 양식이 공존하는 절충주의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하이테크 등 다양한 양식 각자의 독자적인 뚜렷한 경향을 가지고 공존하는 사적 조류가 아닌 시대적 혼탁에 의한 실내디자인의 절충주의적 모습이다. 이것 또한 한국 실내디자인사가 포용해야할 부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호텔 실내공간은 타에 의해 이식되고 유입된 흔적이 그 맥을 따라 존재하고, 일제 양식주의와 왜곡되어진 시대조형을 수없이 오늘날까지 지속된 것은 우리의 맥을 짚어 보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호 작용 속에 현재의 올바른 실내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 할 수 있으므로 과거 근대 호텔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회성과 역사성이 부여된 근대 실내디자인의 공간별 체계적인 미학적 설명과 함께 한국 근대 실내 디자인사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제관광공사, 조선호텔처리지, 1967
2. 김영상, 서울시사편찬위원회, this is seoul, 1957
3. 김경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4. 남경숙, 한국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미건사, 2002
5. 문화재청, 창덕궁 회정당 신관 실측수리보고서, 2003.12
6. 박홍, 아키와 테리어, 기문당, 1999
7.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울근현대역사기행, 1996
8. 세방여행사 40년사, 계명사, 2001.7
9. 이홍, 커피 기원과 전제의 역사, 월간조선편집위원 <http://monthly.chosun.com>
10. 仁川府廳, 仁川府史, 1933
11. 최성연, 개항과 양관 역정, 경기문화사, 1959
12. 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50년비사, 한국여행신문사, 1999
13. 김태영, 한국개항기 외인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90
14.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1992
15. 송석기, 한국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건축으로의 양식변화, 연세대 박논, 1999
16. 이영철, 인천개항 초기(1883-1910) 양식건축의 변천과정 및 특성에 관하여, 인하대 석논, 1978
17. 박홍, INTERIORS, 1999.12

<접수 : 2006. 6. 28>

32)남경숙, 한국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미건사, 2002, p.8